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송암산단에 디지털·첨단산업 유치”

“남구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안정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제도시 육성’, ‘복지공동체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사람 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황일봉 남구청장은 지난해 경기 불황과 신용불부 확산과 같은 외부적인 악재 속에서도 효사랑 재래시장 상품권 7억여 원 유통, 환경보전

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 청장은 “경제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주민들의 지식재산권 획득과 사업화 지원 강화, 송암산단단지 내에 디지털 산업과 첨단 사업 유치 기반 조성, 기업활동 지원 및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있다”며 “이와 동시에 지역통합 복지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자활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 녹색도시로서 남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기후변화 선도도시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운동 추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기후변화 종합클러스터 ‘생생파크’ 조성, 녹색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그린시티 조성, 자원순환정



기 위한 백운 1·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월산 1·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 안전도시 조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도 2010년 주요 추진 현안이다.

황청장은 “지금까지 구정을 반성해보면 주민체감형 시책 발굴이 미흡한 것은 물론, 급격한 세입 감소

평생학습 거점센터 운영

에 따른 재원확보 어려움이 있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패러다임에 대한 실천 노력도 부족했다”며 “올해는 서민생활안정 대책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고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 함양,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운·월산동 재개발 박차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지식재산도시 인증,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선정 등 구정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다.

올해는 ‘경제도시 육성’, ‘복지공동체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문화예술 진흥’, ‘사람 중심 도시 건설’, ‘자치행정 구현’ 등을 6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

김정일 訪中 임박?

日 신문 “북 중 접경지역 경비 강화” 보도

중국 국경도시 단둥에 특별 경계가 펼쳐지고 있다거나 북한 선발대가 중국에 도착했다는 등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설들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있는 단둥역과 주변 지역에 6일부터 특별경계 태세가 펼쳐졌으며 이는 김정일 위원장의 방북을 준비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의 일환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KBS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북을 위한 선발대 30여명이 중국에 도착했으며 단둥에 치안병력이 대폭 증원됐고 평양과 선양간 열차운행이 중단됐다”고 보도.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중에 나설 것이라고 접했다.

작년 12월 있었던 북한 고위 안보·군 관계자들의 중국 방문을 김 위원장의 방북 준비를 위한 사전 정치작

업으로 해석한 일본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계기로 퍼지기 시작한 김 위원장의 1월 방중설은 미국 측의 이례적인 논평으로 무게를 더했다.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관리는 5일 “김 위원장의 방중에 대한 정보는 없다”며 사전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6자회담 복귀의사를 전달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1월 중순-2월 초 방중설이 이처럼 확산되는 것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수차례 김 위원장의 방중을 초청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지도자 취임후 2000년 처음 방문한 이후 네차례 중국을 방문한 것 중 2001년과 2006년에 1월에 방중한 점도 이번 1월 방중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연합뉴스



美 “U-2 정찰기 2년내 퇴역”

주한미군이 운용 중인 U-2 고공정찰기(사진)가 2012년께 퇴역할 전망이다.

7일 주한미군과 성조지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U-2기를 2012년까지 퇴역하고 다른 기종의 정찰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에 3대가 배치된 U-2기는 20여년 가량 대북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다.

미국은 U-2기를 대체할 정찰기로 RQ-4B 글로벌호크를 검토하고 있

나 미국 의회에서는 글로벌호크의 정찰능력의 제한성을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관계자는 “U-2기는 2만7천m 상공에서 장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지만 현재 글로벌호크 성능으로는 북한 전역을 정찰하는 어렵다”면서 “U-2와 유사한 성능의 유인 정찰기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2015년께 글로벌호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

美 국무부 외교사절로 광주 온 ‘피겨의 전설’ 미셸 관

“U대회 성공, 시민 열정에 달려”

단독인터뷰=박진현 문화부장

‘피겨의 전설’ 미셸 관(29)이 7일 광주에 왔다. 세계피겨선수권대회를 5차례나 석권한 그녀는 이날 광주 5·18 기념재단을 찾아 피겨여왕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들려주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도전정신을 심어주었다. 미셸 관은 5·18 기념재단에서 가진 광주일보와의 특별인터뷰에서 오는 2015년 광주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미셸 관은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세계인들에게 광주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열기가 절대적이다”고 말했다.



이번 광주방문은 피겨선수로서가 아닌 미 국무부 공공외교사절의 자격이다. 공공외교사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미셸 관이 광주일보 독자에게 보낸 메시지. “광주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초·중·고생과 ‘성공과 도전’ 주제 대화의 시간

“삼합 등 광주 음식 맛 향상... 다시 오고 싶어”

인이었다. ‘우승’이라는 공동목표를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협력하게 됐다. 어느 날 문득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국제관계에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제사회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팀워크를 중시한다면 ‘세계평화’도 가능하리라 본다. 잘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의 선전으로 다 음달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관심이 많다. 김연아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진=최현배기자 choi@

선수와 함께 연기를 펼친 적이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국민여동생’으로 부르며 환호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웃음) 그녀는 표정연기와 무대 매너가 매우 훌륭한 선수다. 충분히 (금메달을 딸 만큼) 훈련이 잘 돼 있으며 기량 또한 뛰어나다. 개인적인 바람이었다면 (금메달 부담을 덜고) 즐기면서 경기를 했으면 한다.

최근 광주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수차례의 동계올림픽과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피겨선수로서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을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오늘 점심때 삼합 등 한정식을 먹었는데 정말 맛이 있더라. 만약 선수들이 광주의 음식을 먹게 된다면 과식해서 기량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웃음) 무엇보다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개최도시의 열기(excitement)다. 거리의 분위기가 시민들의 따뜻한 환대는 선수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대부분의 참가선수들이 광주를 통해 한국에

▲미셸 관=1980년 로스앤젤레스의 중국 이민가정에서 출생. 2001 세계 선수권 금메달 등 5회 제패, 1998년 나가노 동계 올림픽 은메달,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동메달, 전미 선수권 9회 우승. 2006년 11월 미 국무부 공공외교사절,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스포츠 자문위원. 현재 보스턴 터프츠대학 석사과정.

Large advertisement for '아이엘러시아' (Eye Laser Asia) eye clinic, featuring promotional text, contact information, and a photo of a staff member.